

“팀 전체 집중·헌신...앞으로도 임무 최선”

광주 서부경찰서 수사2팀 '3분기 으뜸수사팀' 선정

“우리 팀은 특별한 게 없어요 늘 해오던 일을 꾸준히 하다 보니 좋은 시너지가 난 것 같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수사2팀이 광주경찰청 선정 '3분기 빛고을 으뜸수사팀'에 이름을 올렸다. 수사2팀은 노권열 경감을 팀장으로 신명준 경사, 송민경·박슬기 경장이 호흡을 맞추고 있다. 올 3분기(7~9월) 총 272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66명을 구속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냈다.

빛고을 으뜸수사팀 제도는 광주경찰청이 분기별 수사성과를 종합 평가해 우수팀을 선정하는 제도로, 사기범죄 검거율·사건처리기간·장기 사건 비율·수사활동 실적 등을 지표로 삼는다.

광주 5개 경찰서 38개 수사팀 중 '으뜸'으로 선정된 수사2팀은 지난해 4분기 수상 이력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전국 1천272개 수사팀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사본부 분기 평가에서 ▲1분기 3위 ▲2분기 4위 ▲3분기 6위를 기록했다.

노 팀장은 17일 “이번 성과는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집중력과 헌신 덕분”이라며 “특히 10년 수사경력의 베테랑인 신명준 수사관의 역할이

광주경찰청, 분기별 수사성과 평가

‘암호화폐 사기’ 등 사건 272건 처리

66명 구속...노권열 팀장 등 4명 ‘호흡’

작년 4분기에도 으뜸수사팀으로 뽑혀

줬다”고 수상의 공을 팀원에게 돌렸다.

암호화폐 개발 사기 정보를 입수한 신 수사관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겠다는 판단에 관련된 계좌 2천여개를 우선 분석했다.

그는 “피의자들이 돈의 흐름을 복잡하게 만들어 책임을 피하려는 수법을 쓸 걸 알고 있었다”며 “그래서 먼저 자금 흐름을 완전히 파악해야 했다”고 회상했다.

그 결과 투자금이 암호화폐 개발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유용된 정황이 확인돼 신 수사관은 증거 확보에 나섰고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올해 3월부터 수사 업무를 맡은 송민경 경장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광주경찰청이 지역 5개 경찰서 37개 수사팀을 대상으로 선정한 '3분기 빛고을 으뜸수사팀'에 서부경찰서 수사2팀이 이름을 올렸다. 왼쪽부터 신명준 경사, 송민경·박슬기 경장, 노권열 경감. /이연상 기자

송 경장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한 게임물을 설치, 운영하고 불법 환전까지 해주는 성인 게임장의 동향을 포착했다.

이후 현장에서 게임기 3종 14점과 PC 11대를 확보한 그는 장부와 환전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서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첫 사건이라 부담도 있었지만 팀 선배들이 옆에서 끝까지 도와줬다”며 “증거 보존을 위해 즉시 압수 조치를 실시한 덕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박슬기 경장은 “팀장님을 주축으로 우리팀이 함께 불철주야 노력한 것을 인정받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팀장인 노권열 경감은 “베테랑 수사관이 잘 이끌어주고 신임 수사관이 잘 따라준 덕분”이라며 “수상 실적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도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번 선정 결과에 대해 윤재상 수사과장은 “3분기 성과가 값진 결과로 이어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내실 있는 수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연상 기자



광주매일신문 ‘AI 활용 글쓰기’ 사내연수

광주매일신문은 17일 본사 교육실에서 편집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김형주 아테라커뮤니케이션 대표가 강사로 나서 ‘AI 글쓰기’를 주제로 강의했다.

김 대표는 챗GPT로 생성한 자료를 활용해 이미지 기반 기사 작성, 보도자료 재구성 등 실습 위주의 강의를 펼쳐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AI는 반복 업무와 정리 작업을 빠르게 도와주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기자의 아이디어·문장력·현장성은 대신할 수 없다”며 “중앙 언론보다 인력이 적은 지역 언론이 AI를 적극 활용하면 속도와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면서 “다양한 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는 시대에 AI는 자료 정리, 표 작성, 초안 생성 등에서 큰 장점이 있다”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자는 더욱 높은 품질과 차별화된 시각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대학가에서 AI를 시험이나 과제에 활용한 사례가 논란이 된 데 대해 “사실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우려를 표하며 “무분별하게 의존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성학 기자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

여수시노인복지관은 “최근 롯데케미칼(주) 여수공장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롯데케미칼 임직원들이 참여해 독거 어르신 87가구에 연탄 3천500장을 전달했다.

연탄보일러는 사용의 불편함과 안전 문제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기름보일러로 교체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지역사회 도움이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성권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본부장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힘



을 보낼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담양 봉산면 새마을부녀회 ‘밑반찬 나눔’

담양군 봉산면 새마을부녀회는 “최근 복지회관에서 취약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새마을부녀회원 21명이 참여해 이른 오전부터 재료를 손질, 배추김치, 장조림, 김자반부침, 알감자조림 등 네 가지 반찬을 만들어 홀로 사는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양두례 봉산면 새마을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따뜻함이 전해졌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 운영



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전남도의회, 지역경제 활성화 가두 캠페인

전남도의회는 17일 오전 전남도청 앞 사거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착한 선결제 문화 확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장려 등 도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김태균 의장 등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전남도청 사거리 8개 방향에서 플래카드와 어깨띠, 피켓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김태균 의장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된다”며 “도의회도 도민과 함께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남구가족센터 ‘다문화부모학교 6기 졸업식’

광주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5일 오전 센터에서 ‘다문화부모학교 6기 졸업식’을 열고 11명의 결혼이민자 수료생에게 졸업장을 수여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장미영 광주남구가족센터장, 김유미 지도교사 등이 참석해 수료생들을 격려했으며 성적 우수자 시상과 활동 영상 상영 등이 진행됐다.

다문화부모학교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광주 5개 자치구 중 남구가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교육은 ▲초등 교과과정 온·오프라인 교육 ▲초·중·고 검정고시 준비 및 응시 지원 ▲가정학습지도 등이다.



장미영 광주남구가족센터장은 “다문화부모학교가 결혼이민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광양제철 에버그린 재능봉사단, 50번째 벽화 완성

광양제철소 에버그린 벽화 재능봉사단은 “최근 광양 중마동 중마사랑요양원에서 50번째 벽화 완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행사에는 최대현 광양시의회 의장과 서영배·백성호 광양시의원, 정경수 광양YMCA 이사장을 비롯해 에버그린 벽화 재능봉사단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50호 벽화는 치매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요양원 환경을 고려해 ‘추억’을 테마로 제작됐다. 유년 시절 골목에서 뛰놀던 모습, 교복을 입은 소년·소녀, 자녀와 함께한 시간, 노년의 평온한 일상 등 인생의 주요 순간을 상징하는 장면들이 벽면에 담겼다.

강성환 에버그린 벽화 재능봉사단장은 “낯고



게 익은 담장과 화색빛 벽이 화사한 그림으로 바뀌고 주민들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작은 보릿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김성의 광주전남언론포럼 이사장

한국언론중재위 신임 위원 선임



김성의(전 남도일보 대표이사·사진) (사)광주전남언론포럼 이사장이 17일 한국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 신임 중재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날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 김 이사장은 오는 12월1일 한국언론중재위원회 서울중재부에서 열리는 신임 중재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성의 신임 언론중재위원은 “공정한 중재자로서 피해자와 언론사의 균형 잡힌 이해를 도모하겠다”며 “디지털미디어시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의 허위 정보 확산 방지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은 나주 출신으로 광주직속산고와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호남대 행정복지대학원을 졸업했다.

1988년 무등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광주매일, 남도일보에서 현역기자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1997년 남도일보 창간 멤버로 참여해 편집국장, 광고국장, 경영본부장, 대표이사 사장,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36년 동안 신문인으로 사회 외길을 걸어온 언론인이다. 현재 (사)광주전남언론포럼 이사장, 재광나주향우회 회장, 인공태양연구소설 유치 나주시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기수희 기자

5·18부상자회, 신극정 신임 회장 선출



오월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신극정(사진)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17일 5·18부상자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임시중앙총회에서 신극정 신임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가 선출됐다.

정관에 따라 단독 후보로 출마한 신 회장은 별도 표결 없이 자동 임명됐다.

5·18 당시 민주연합청년동지회로 활동한 신 회장은 2005년부터 5·18부상자회 경기지부에서 상임고문 등을 맡아 활동해왔다.

신 회장은 이날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로 첫 임정을 시작했으며 임기는 오는 2028년 7월까지다.

신 회장은 “시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화합과 쇄신의 의지를 전명하고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농협 곡성군지부 ‘사랑의 쌀’ 전달

농협 곡성군지부는 최근 농·축협 임직원과 ‘한마음 상생대회장’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쌀 1천kg을 곡성군에 기부했다.

기부된 쌀은 농·축협 임직원들이 지역공동체와 상생하기 위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됐다.

방현용 농협 곡성군지부장은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쌀을 선물해 드릴 수 있어 보람차고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결혼

▲최규룡(기아 오토랜드 광주)·김춘애씨 장남 대현(살레시오교 교사)군, 오행수·강성란씨 딸 신영양=29일(토) 오후 3시 드메르 웨딩홀 분관 4층 라비엔홀(광산구 도천동 147-29).

▲문영호·유신임씨 장남 창진군, 현현구(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김옥희씨 장녀 해경양=30일(일) 오후 3시 서울대 연구공원 웨딩홀(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02)878-0465, 010-3721-8259).

부음

▲김태규(전남매일 사진국장)씨 별세, 김영진·현진씨 부친상=발인 18일(화) 오전 9시30분 광주 VIP장례타운 VVIP 301호(062-521-4444).